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결과자료집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결과자료집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결과자료집





이 자료집은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 01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02 | 사업소개

2. 프로그램 운영

- 01 | 프로그램 소개
- 02 | 운영과정
- 03 | 프로그램 운영

3. 후기

- 01 | 참여자 만족도
- 02 | 참여자 후기
- 03 | 예술교육가 후기





1

사업 개요

프로그램
평가

2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내 안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주변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등1~2학년에게 '감정'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다. 이에 초등1~2학년이 실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보물지도'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여 성취감을 높이고자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기쁨과 좌절, 성취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 또한 내 안의 보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마음의 보물지도를 완성해가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의 방식과 협력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대상 초등1~2학년
운영기간 2020.07.25.~11.28
운영기수 총 2기수
운영회차 총 16회 (기수별 8회)

교육 목표

1.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있는지조차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하고 발휘해보면서 내 자신의 소중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느껴본다.
2. 내적인 힘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를 경쟁과 다툼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함께 지키려는 연대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여, '나'의 개념을 확장한다.

교육과정 구성

단계	목표	내용
탐색	·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놀이를 통해 긴장을 풀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공유한다. · 내 감정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신체적·언어적으로 표현한다.	1회 들썩들썩 꿈틀꿈틀 나의 몸 2회 감정공장 3회 정말 정말 화나면
발견	· 내 감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극 속에 반영한다. ·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극적상황을 이해하고 역할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4회 내가 좋아하는 것 5회 모험을 떠나요 6회 내 안의 힘 발견
실천	· 과정에서 탐색, 발견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탐구한다. · 극 속에서 위인의 삶을 돕는 과정을 통해 실천, 연대, 지지의 중요성을 알고 극으로 표현한다.	7회 세상을 바꾸는 힘1 8회 세상을 바꾸는 힘2

회차별 세부 교육내용

단계	회차	제목	활동내용	
탐색	1	들썩들썩 꿈틀꿈틀 나의 몸	· 일상생활 속 동작을 8박자에 맞춰 빠르게 혹은 느리게 움직이며 내 몸을 탐색·표현하고, 이 일상의 몸짓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	
		감정공장	· 걱정이 많은 아이의 고민을 통해 나의 걱정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주인공을 공감하고 지지해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한다.	
		정말 정말 화나면	· 화가 난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이 담긴 주인공 소피의 이야기를 통해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해본다.	
발견	4	내가 좋아하는 것	·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경험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모험을 떠나요	· 마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용기와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연극 속에서 경험한다.	
실천	6	내 안의 힘 발견	· 헬렌 켈러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성장하는 일에는 내가 가진 힘을 발견하고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내 주변의 관심과 애정,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해본다.	
		7	세상을 바꾸는 힘 1	· 왕가리 마타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위인의 삶을 극 속에서 살아보면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실천	8	8	세상을 바꾸는 힘 2	· 어려움에 처한 왕가리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대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운영기

사업의 시작

2020년은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 19로 사업을 운영하기 녹록치 않았던 한 해였다. 매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운영해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올해는 부평생활문화센터와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했다.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특히, 이번 년도는 재단 문화예술교육을 다시 점검하며 기존에 초등1~6학년 통합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가졌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초등 1~2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꿈다락으로 채우고자 했다. 회의를 통해 1~2학년 시기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감정', '자기발견'이라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2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는 시작되었다.

걱정 속 만반의 코로나 대비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선정 과정부터 일정이 연기되고 인터뷰 심사도 화상으로 진행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우왕좌왕 했다. 당초 3기수로 계획된 사업은 연기된 일정으로 2기수로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에 코로나19 상황 아래 처음 진행하게 될 수업을 대비하고자 모의수업을 4회차 진행했다. 참여 어린이들을 만나기에 앞서 모의수업을 진행하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상황을 미리 연습했다. 무엇보다 표정이 중요한 연극수업인데 마스크를 쓰고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앞섰다. 마스크를 벗고 페이스 워크를 쓸까. 모두 착용해야 하나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모의수업을 진행하며 하나씩 정리하고 코로나19에 대비했다.

우왕좌왕 코로나 대면기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1기수 첫 수업은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수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참여자에게 일정 연기를 안내했다. 그리고 또 한번 일정이 연기됐다. 2번의 연기 끝에 7월 말에 드디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준 참여 어린이와 보호자, 그리고 강사님들로 인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1회, 2회, 3회, 4회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업은 그리 오래 진행할 수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며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었다.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8월 중순에 수업이 중단된 채 9월을 맞았다. 재단에서는 수업을 다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며 사업 중단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강사님과 논의 끝에 10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끝나야 하는 지원사업이었기에 남은 수업 회차 일정과 2기수 일정을 고려한 마지노선이었다. 9월 중순이 되었다. 사업이 계속 연기되어 보조강사는 다른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며 계속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조강사를 다시 구하는 일은 난제였다. 겨우 보조강사 다른 분을 구했다. 그리고 지원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처음 코로나19로 수업이 연기되었을 때, 비대면 수업 방식을 잠깐 논의하긴 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 상, 비대면 수업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많은 내용들을 비대면에 맞게 수정해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비대면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대면만 고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또 다시 긴 논의 끝에 10월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때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능한 수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업 중 강사님들이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보기'는 사전 영상촬영, 나머지 내용들은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비대면 수업 준비를 위해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페이퍼 작업을 끝내고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가 10월 초였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다.

다시 만난 우리들

비대면 수업을 다 준비해둔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지만 가능한 빨리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2기수 수업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랴부랴 1기수 수업을 재개하고, 2기수 참여자를 모집했다. 우려와 달리 참여자는 당일 마감되었고, 1기수 참여자 분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해주었다. 10월17일, 1기수 수업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시작되었고 11월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8회차의 수업이 5월에 시작해 11월에 끝났다. 긴 시간동안 강사와 참여자 모두 지치지 않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 서로 위로하고 감사해 하는 시간이었다. 2기수는 1기수를 겪으며, 쌓인 노하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보다 완화되어 2단계가 되어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 어린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4~5명의 어린이가 한 번에 못나오기도 했다. 그 학교에 강사님 중 한 분의 자녀가 재학중이라 만일을 위해 그 강사님은 한 차례 수업을 쉬기도 했다. 다행히 참여 어린이들이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일주일 이 지난 뒤,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수업을 운영했다. 다행히 2기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번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기수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강사님들과 기다려주신 참여자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에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차후에는 보다 탄탄하고 안정된 대처방안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사업팀 안효정

- 2020.02.05 | 2020 인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고
- 2020.02.06.~02.20 |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2020.02.21 | 사업계획서 신청 완료
- 2020.03.06 | 1차 서류심사의 선정
- 2020.03.30 | 2차 인터뷰 심의 진행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온라인 화상 인터뷰 진행)
- 2020.04.06 | 2020 인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최종 선정
- 2020.05.18 | 1기수 참여자 모집
- 2020.05.19 |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일정 1차 연기
- 2020.05.22.~06.11 | 코로나19 대비 모의수업 4회 진행
- 2020.06.17 |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일정 2차 연기
- 2020.07.25.~08.15 | 1기수 1~4회차 프로그램 운영
- 2020.08.20.~10.16 | 코로나19 확산으로 1기수 프로그램 잠정 휴강 및 2기수 일정 연기
- 2020.10.17.~11.07 | 1기수 5~8회차 프로그램 운영 및 종강
- 2020.10.18 | 2기수 참여자 모집
- 2020.10.24.~11.28 | 2기수 1~8회차 프로그램 운영 및 종강

프로그램 운영

1기수

- 운영 일정** 2020.07.25.~11.07 매주 토요일 10:00~12:00, 총8회
(2020.08.22.~10.10. 코로나19로 인한 휴강)
- 운영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다목적홀,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 참여 인원** 12명
- 참여 어린이** 김지유, 박송주, 백연우, 이루리, 이서현, 이수아, 이찬희, 이채원, 임서연, 임승현, 전아울, 홍유건
- 참여 강사**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김민주, 김애숙, 최영록
- 보조 강사** 채혜리, 심민하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2기수

- 운영 일정** 2020.10.24.~11.28 매주 토요일 13:30~15:30
(2020.11.06, 11.27 금요일 16:30~18:30) 총8회
- 운영 장소**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 참여 인원** 14명
- 참여 어린이** 김민채, 김상범, 김태영, 김하린, 송영인, 신민혜, 양지수, 우예린, 이선유, 임태민, 장지우, 장지원, 최윤서, 한지원
- 참여 강사**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김민주, 김애숙, 최영록
- 보조 강사** 심민하



〈탐색〉

들썩들썩 꿈틀꿈틀 나의 몸

교육 목표

1. 내 몸은 매일 자라고 움직이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안다.
2. 몸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감정과 마음을 표현함을 안다.
3. 내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해봄으로써 내 몸의 새로움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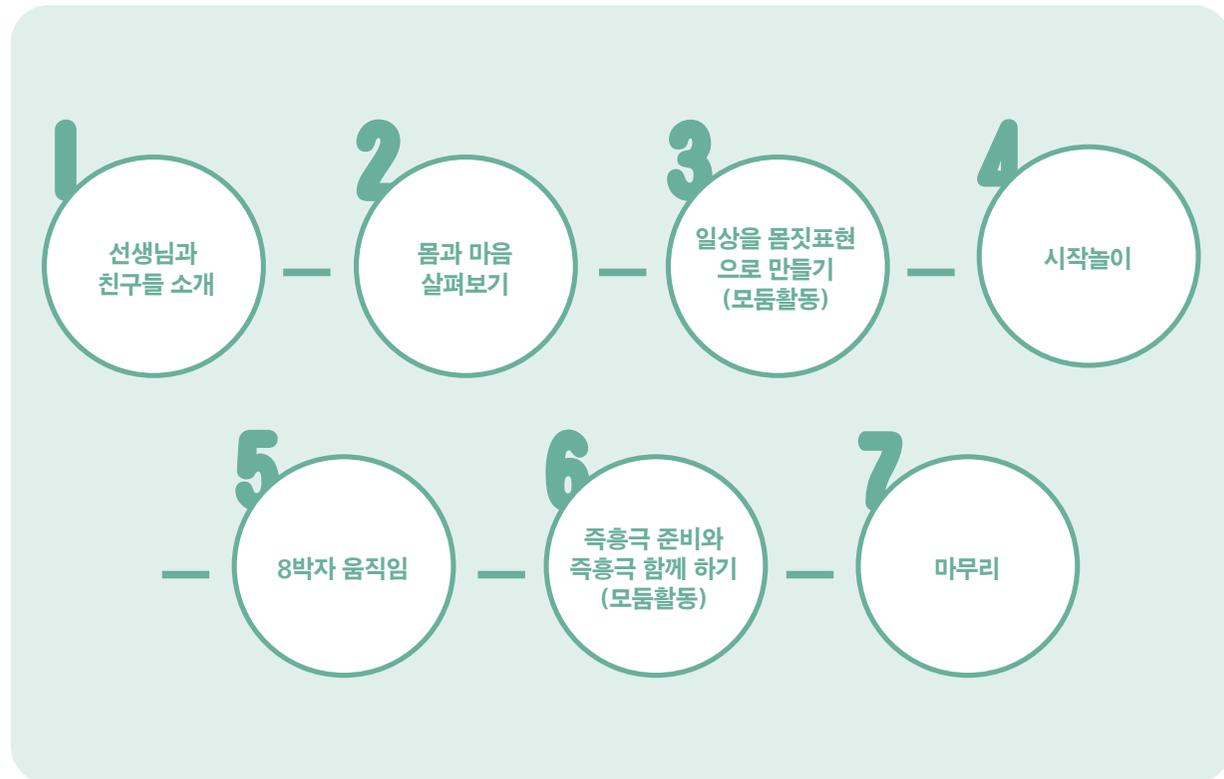
처음 오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연극을 하는 곳.

이 세 가지가 떠오르면 긴장이 우리 몸 이곳저곳에 달라붙기 시작한다.

이때 익숙한 놀이들은 긴장을 날려버리고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1회차에서는 놀이를 통해 몸을 낮게, 높게, 좌우로 움직여 본다. 그리고 '밥 먹기', '세수하기', '책보기', '피아노치기',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동작들을 떠올려 본다. 이 동작들과 그림책에 소개된 동작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움직이기, 느리게 움직이기, 빠르게 움직이기를 즉흥극으로 표현해 본다. 즉, 몸과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익숙한 몸동작을 연극적으로 표현해봄으로써 '아~ 연극은 이런 거구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역할을 주고받는 거구나', '즐겁다'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수업과정



• 1회차 •

시작놀이



몸과 마음 살펴보기



일상을 몸짓표현으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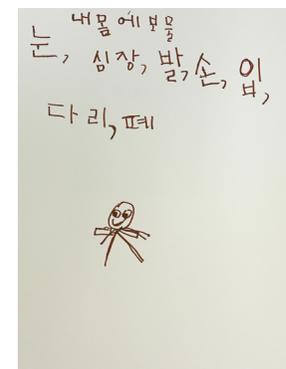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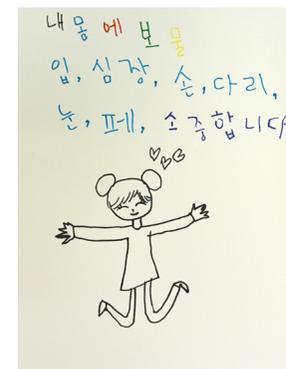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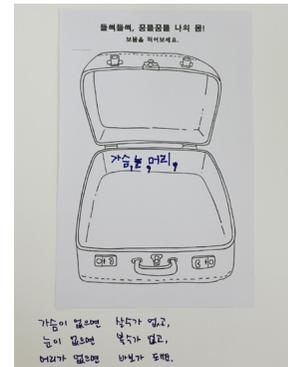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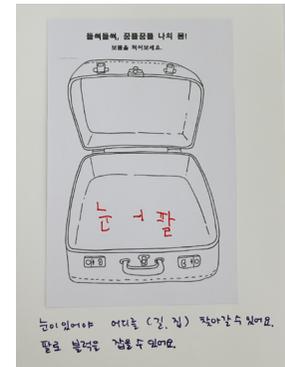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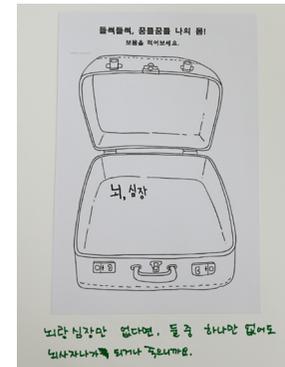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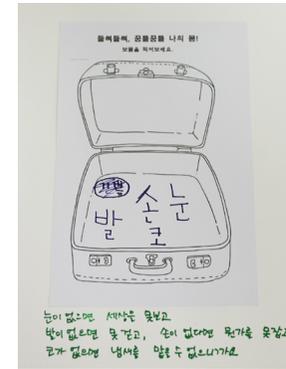


즉흥극 준비와 즉흥극 함께 하기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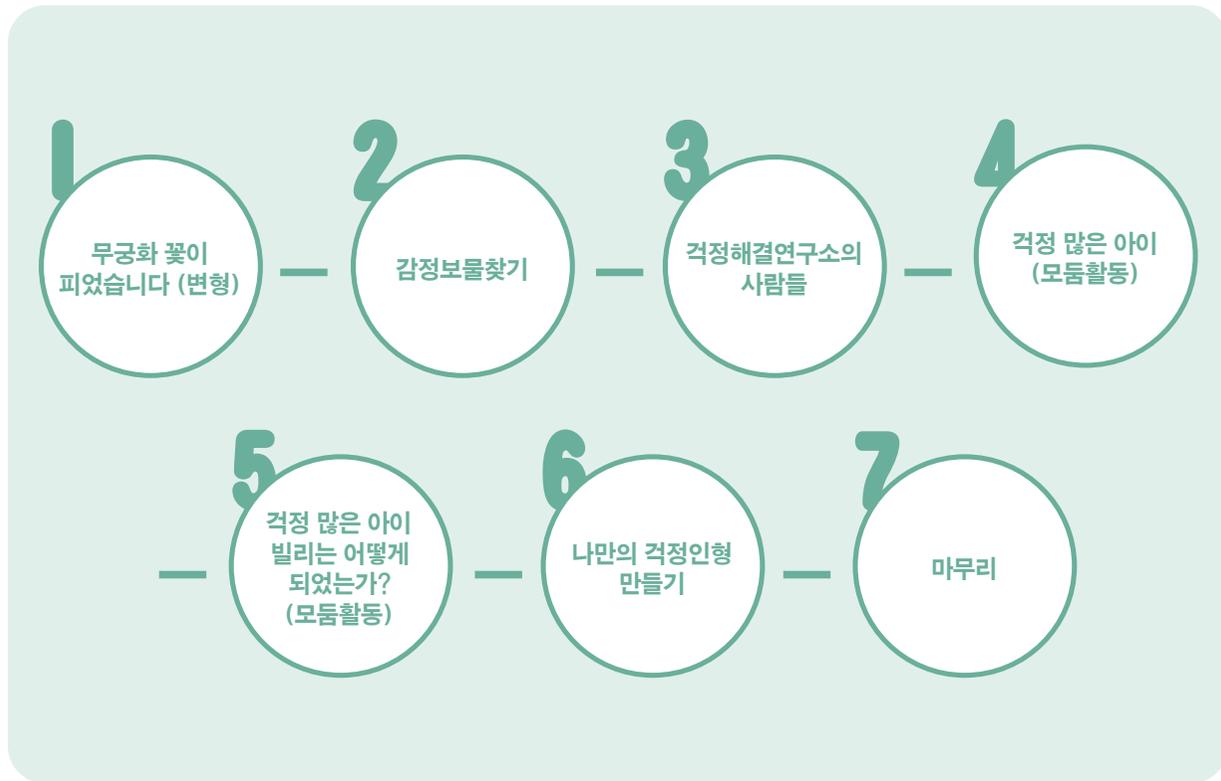
<탐색> 감정공장

교육 목표

1.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감정임을 안다.
2. 또래의 걱정을 공유하고 걱정을 해소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찾아본다.

기쁨, 슬픔, 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은 매순간 표정과 몸짓, 언어로 표현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의 가치를 크게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그 이유는 자기감정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에서 요동치는 다양한 감정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몸짓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직접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걱정과 불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할 때도 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될 때도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내 주변에서 그 감정 자체를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면 걱정거리도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음을 찾아보고자 한다.

수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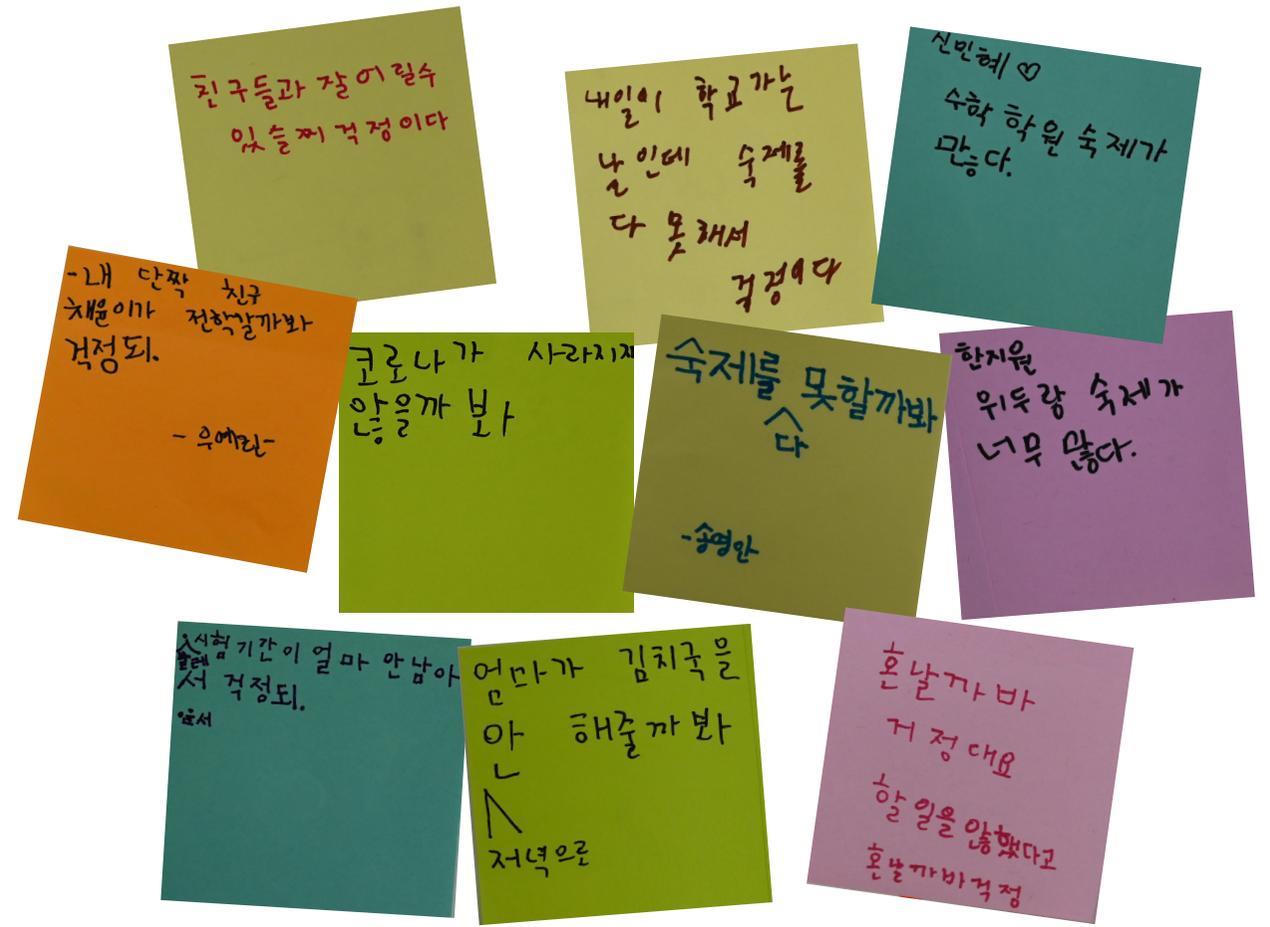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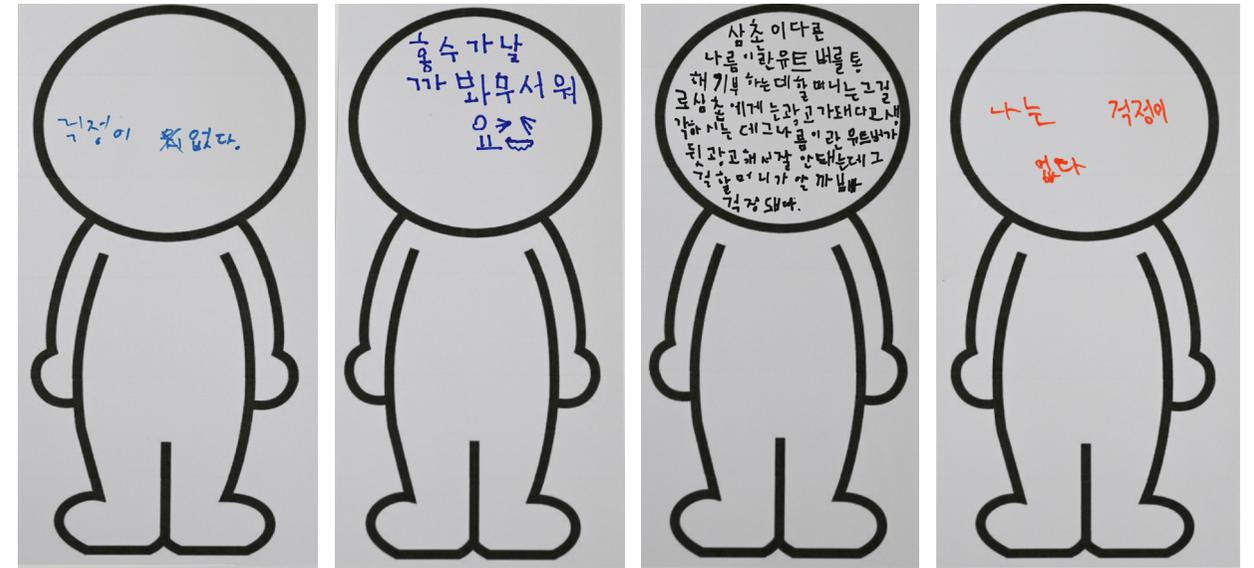


• 2회차 •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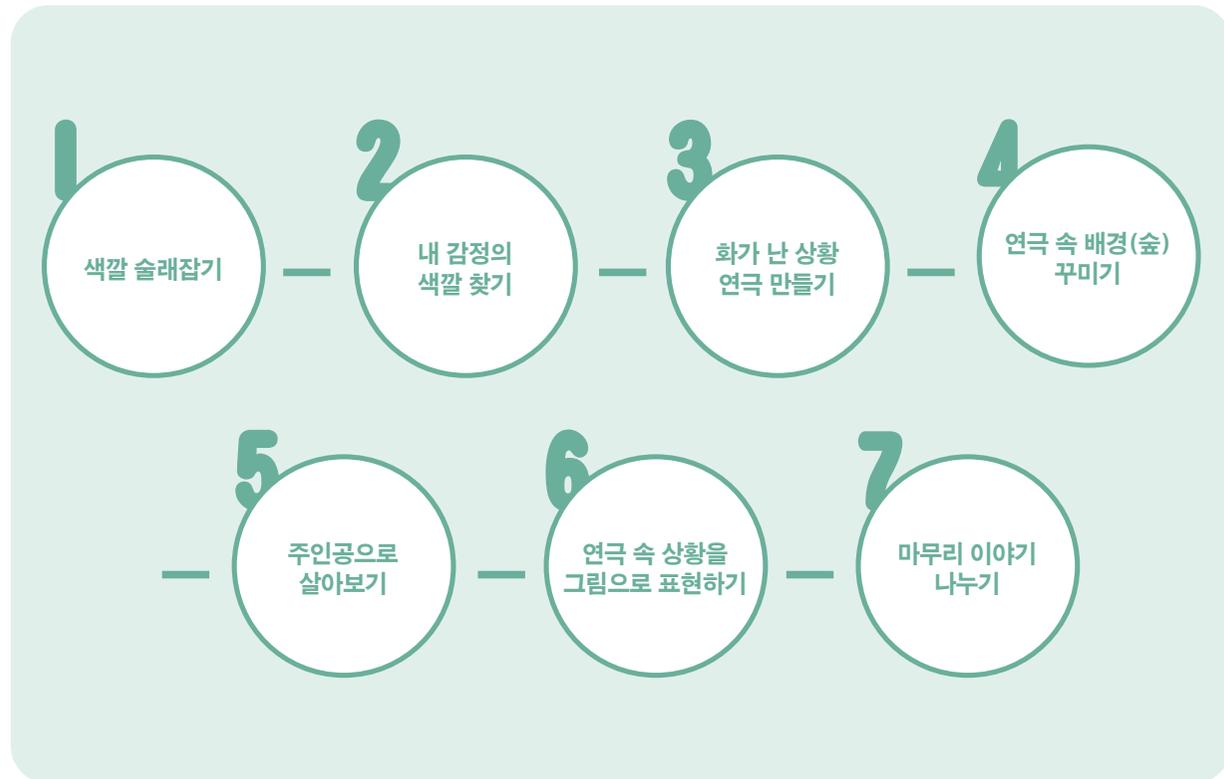
<발견> 정말 정말 화나면

교육 목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고, 화가 날 땐 어떻게 할까?
하루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낼 일이 많이도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참여자는 주인공 소피가 화가 난 상황을 떠올리며, 나의 일상에서 화가 나는 순간을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한다.
소피가 자연에서 감정을 치유했듯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치유받을 공간을 꾸미고, 자연 속에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는 꼭 놀러 참거나, 불같이 표현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수업과정



• 3회차 •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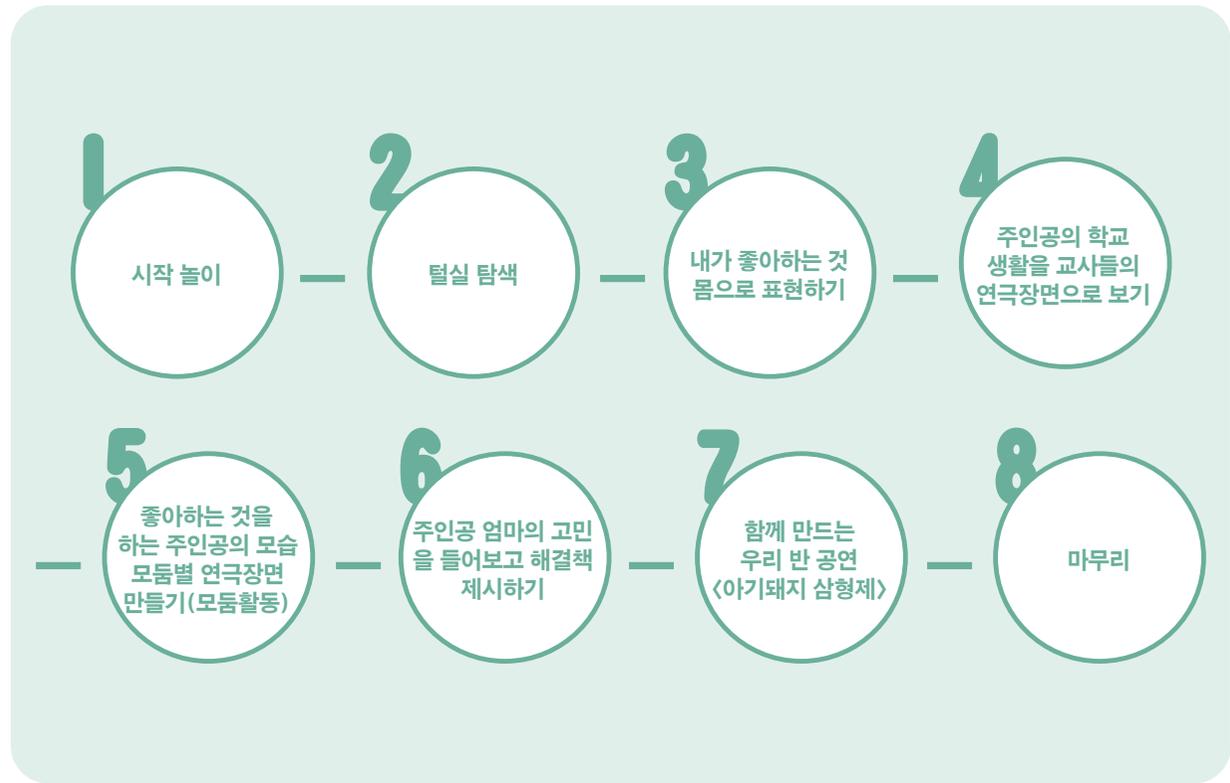
<발견> 내가 좋아하는 것

교육 목표

1. '내가 좋아하는 것' 책 속의 좋아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2.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같이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한다.
3.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또는 글로 적어 본다.

아이들과 좋아하는 것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몸으로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라피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남자아이가 뜨개질을 한다'는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학교발표회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능을 인정받는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해본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수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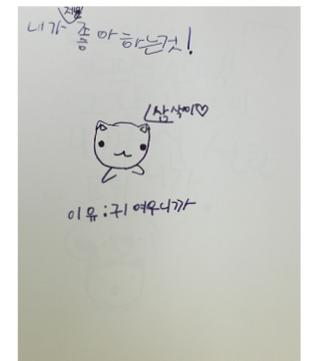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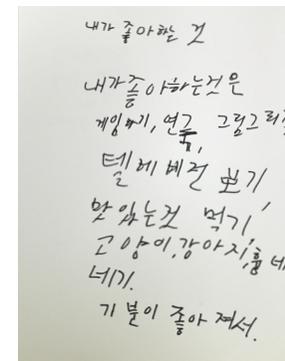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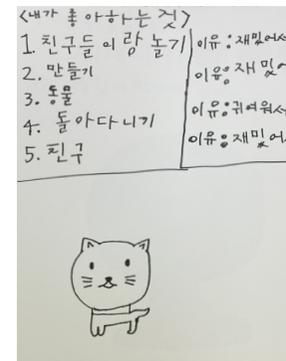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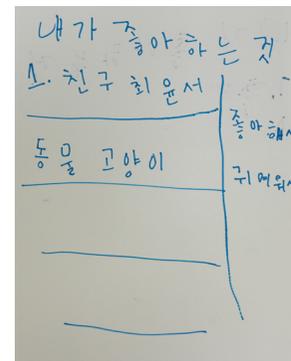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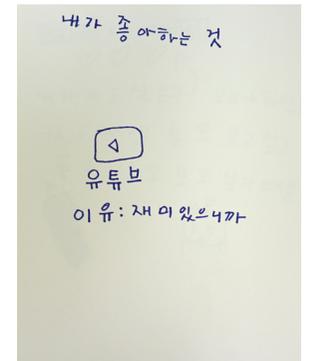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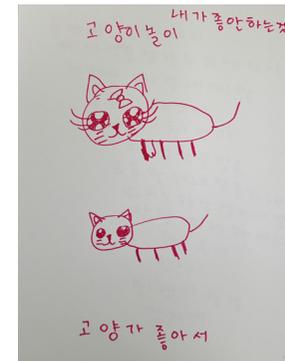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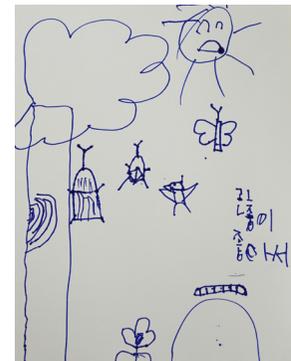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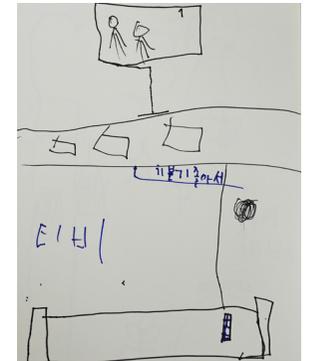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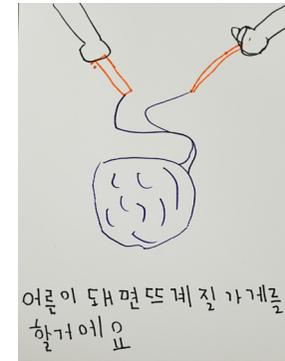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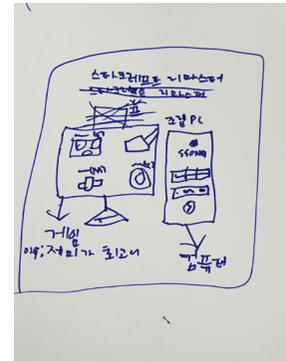


• 4회차 •





워크북



〈발견〉 모험을 떠나요

교육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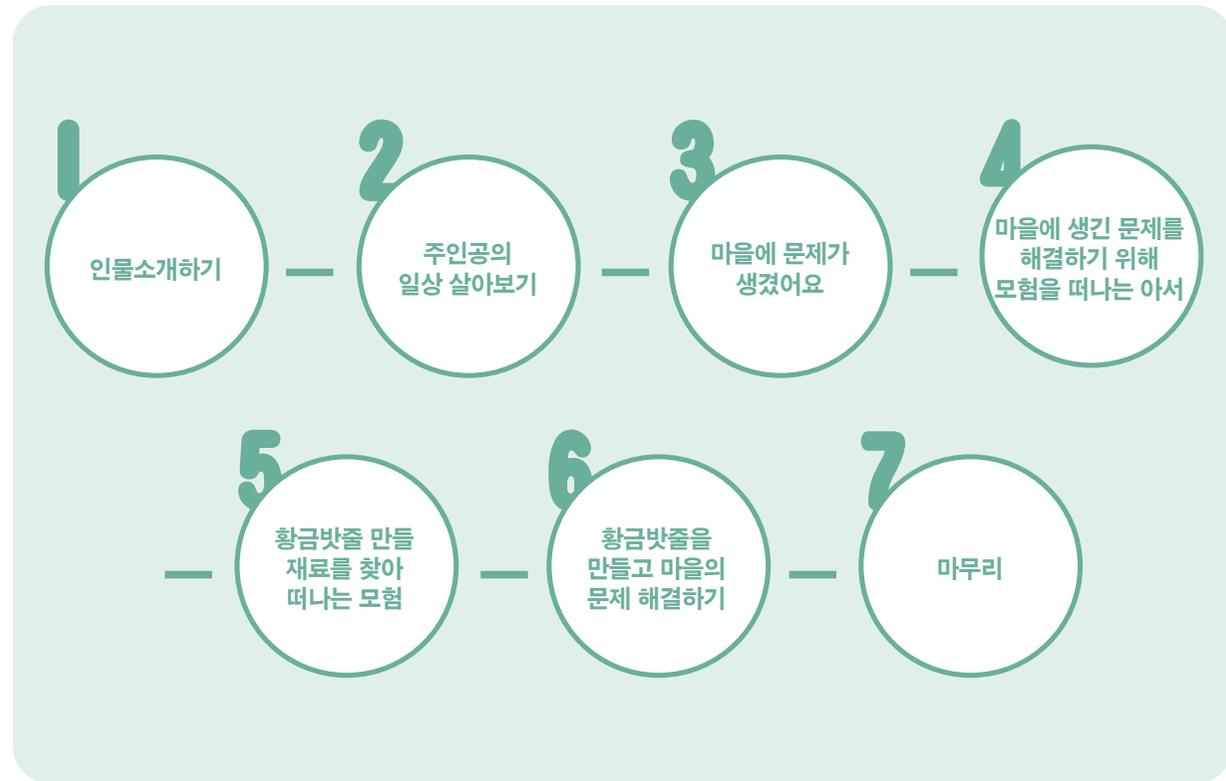
1. 등장인물이 되어 마을에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모험과 도전을 경험한다.
2. 모험을 하면서 내가 발휘한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3.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모험에는 무엇이 있는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북유럽 마을에 사는 아서는 호기심이 많아 혼자 숲에서 모험하기, 숲에서 찾아낸 특이한 물건을 가져와 모으는 걸 좋아하는 아이다. 숲을 다니다가 용기를 내어 거대한 수탉의 알을 찾아주고 숲 속 요정들의 전쟁을 끝내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신비한 선물을 받기도 한다.

어느 날 아서가 사는 마을에 괴물 늑대(페르리)가 나타나 마을을 지켜주는 커다란 불을 꺼뜨려 마을은 이젠 일주일 안에 얼음으로 덮히게 될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 커다란 불은 하늘의 신 토르만이 불을 피울 수 있고 마을사람들은 괴물 늑대와 싸우느라 부상을 당해서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서 뿐이다.

오늘 수업에서는 친구들이 주인공 아서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극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을에 닥친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마을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수업과정



• 5회차 •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아서



황금밧줄 만들 재료를 찾아 떠나는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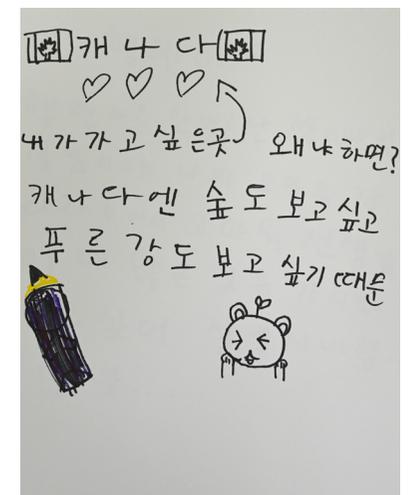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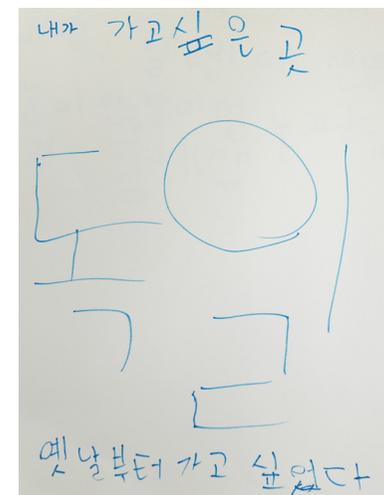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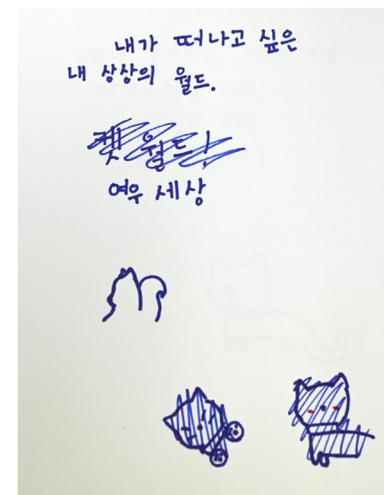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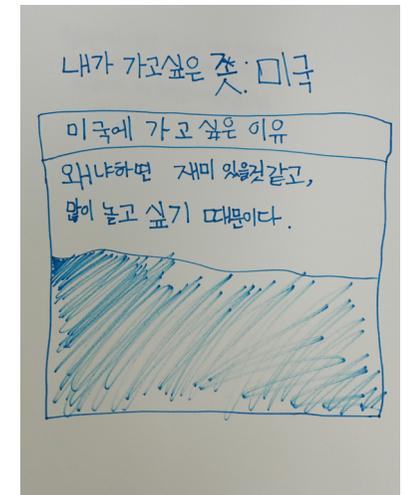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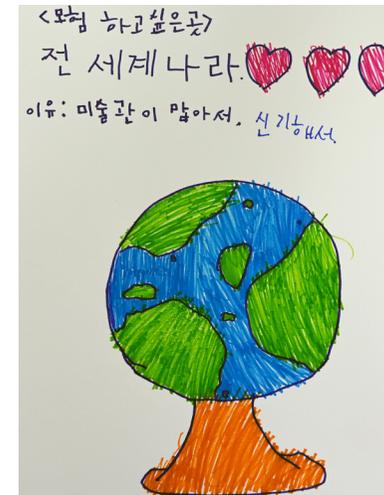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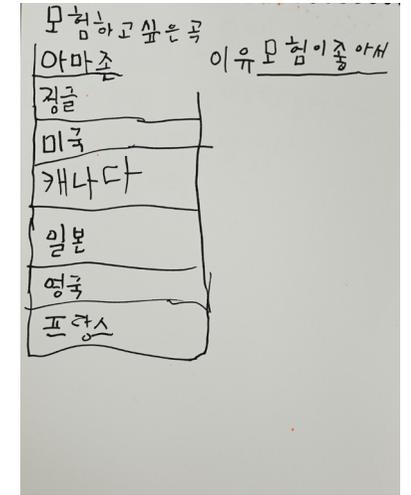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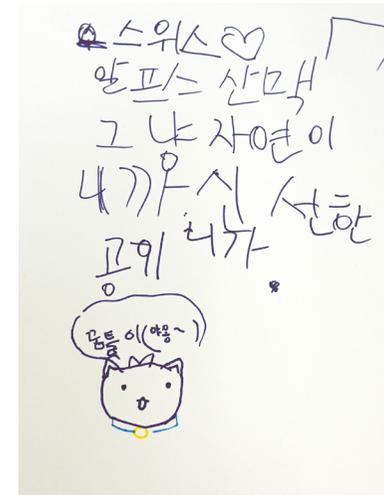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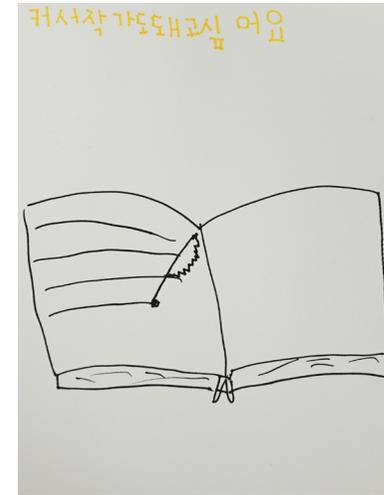


황금밧줄을 만들고 마을의 문제 해결하기





워크북



〈실천〉 내 안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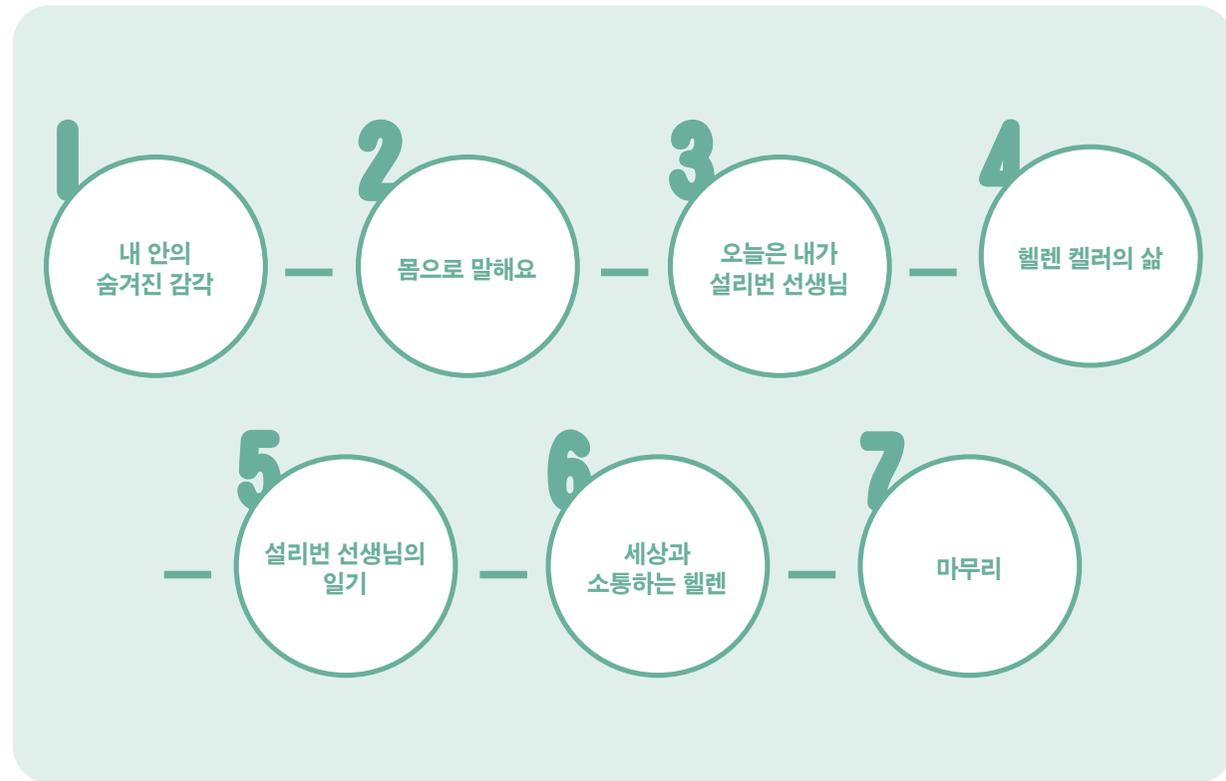
교육 목표

1. 인간의 몸은 무력해진 감각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는 가능성의 존재임을 안다.
2. 헬렌 켈러를 통해 없는 걸 인정하고 다른 감각을 발전시킨 끈기와 의지를 체험한다.
3.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상상했던 세상에 대해 촉감과 후각을 발달시킨 헬렌 켈러의 노력의 가치를 안다.

헬렌 켈러의 위인전을 보면 그녀는 상상력이 가득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다. 아기 때 열병으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행동을 익히지 못해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나갔다.

우리 몸은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 움직이고 말하고 듣는다고 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듣고 말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수업과정



• 6회차 •

몸으로 말해요



오늘은 내가 설리번 선생님



헬렌 켈러의 삶



설리번 선생님의 일기



〈실천〉 세상을 바꾸는 힘1

교육 목표

모든 일에는 역경이 뒤따르며,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됨을 이해한다.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케냐에서 태어난 왕가리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다. 고향에 돌아온 왕가리는 예전과 달라진 마을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무를 베어 낸 일이 결국 홍수와 가뭄을 생기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운동가로서 이를 실천하게 되는 왕가리 마타이. 참여자들은 이 전 과정을 연극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인공 왕가리 마타이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수업과정



• 7회차 •

네리마을 아이들로 살아보기



변해버린 마을에 닥친 힘든 일 연극장면 만들기



나무 심는 왕가리





〈실천〉

세상을 바꾸는 힘2

교육 목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힘은 함께 하는 이들의 지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체험해 본다.

변해버린 케냐를 살리려는 왕가리 마타이의 그린벨트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이고 왜 그러는 것일까?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왕가리와 환경운동가들. 그들이 어떤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며,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어려운 상황을 더욱 잘 극복할 수 있음을 경험해본다.

수업과정



• 8회차 •

행복한 우후루 공원의 사람들 정지장면 만들기



우후루 공원의 침입자들



우후루 공원을 지켜라!



그린벨트 운동본부에 닥쳐온 위기 연극 장면보기



왕가리를 응원하는 편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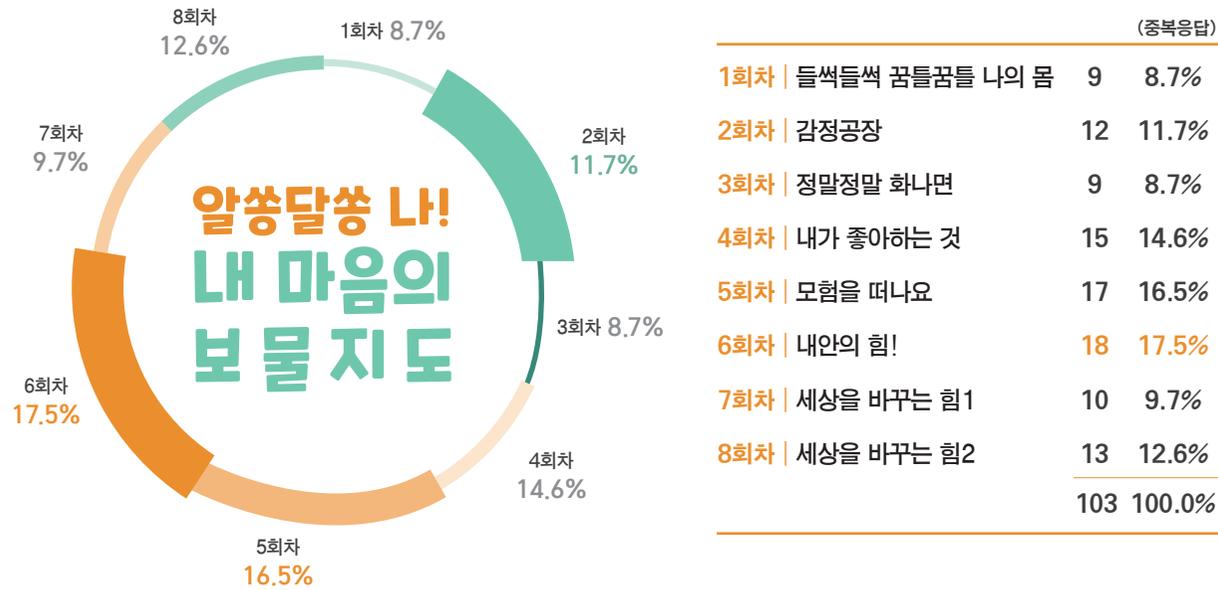
3

후기

〈참여자 만족도〉

어린이 만족도

수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위에 선택한 활동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헬렌켈러의 연설이 감동적이어서	모험을 떠나요는 불을 끈게 좋았다. 으스스해서 좋았다.
겁쟁이들에게 마음을 심을 수 있어서	친구들과 모든 것을 표현해보고 모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뜨개질이 좋아서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재미있었고, 마을같은 곳 만들기가 재미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기분이 벅차서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열심히 노력을 한 헬렌 때문에
인상적이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있고, 거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헬렌켈러를 가르치는 일이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 말씀을 잘 듣기로 생각했다.	왕가리 마타이 이름이 기억이 잘나서.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
토르의 황금밧줄에서는 선생님의 밧줄을 던지는 장면에서 실수가 기억나고 재미있었다.	흥미롭고 신나고 활동하는게 많아서 좋았어요.

보호자 만족도

수업과정 평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1. 커리큘럼이 학습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5	21.7%
매우 그렇다.	18	78.3%
23		100.0%



1-2. 교육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1	4.3%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8	78.3%
23		100.0%



1-3.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이 적절하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1	4.3%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8	78.3%
23		100.0%



1-4. 교육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23		100.0%



강사평가

2-1. 강사는 성실하고 열의에 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2	8.7%
매우 그렇다.	21	91.3%
23		100.0%



2-2. 강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23		100.0%



보호자 만족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2-3. 강사는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합계	23	100.0%



2-4. 강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합계	23	100.0%



기관평가

3-1. 강의일정, 수업준비 등 담당자의 안내가 잘 전달되었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6	26.1%
매우 그렇다.	17	73.9%
합계	23	100.0%



3-3. 직원 및 스태프들의 응대 서비스에 만족한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합계	23	100.0%



3-2. 강의공간의 시설 및 환경이 쾌적하였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2	8.7%
그렇다	8	34.8%
매우 그렇다.	13	56.5%
합계	23	100.0%



3-4.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	0	0.0%
그렇다	4	17.4%
매우 그렇다.	19	82.6%
합계	23	100.0%



보호자 만족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자기표현이 늘어났다.
-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 표현력이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적어졌다.
- 아이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게 되었어요.
-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김
- 확 달라지진 않았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표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다양한 연극프로그램을 경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생기고 시각이 넓어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동화의 주제로 진행되는 연극수업을 처음 참여해봤는데, 인상적 부분(배려, 공감, 협동, 책임감 등)에서 변화가 있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이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수업이 끝난 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봐서 좋았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교육한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 수업을 받으러 올 때마다 아이가 매우 기대하고 오는 것으로 보아 수업에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흥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 밝아졌어요
-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으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보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같이 연극한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강사님이나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아이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프로그램 이끌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아이에게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이 프로그램 너무 좋네요. ^^
- 수업 끝나고 전반적으로 브리핑 시간을 가져주셔서 꿈다락 수업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어요.
-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끝까지 수업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처음 수업에 참여해보았는데,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며 이해해주고 지켜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넘 좋았습니다.
- 프로그램이 매우 뜻깊습니다. 매번 나오셔서 브리핑도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 초2까지만 해서 아쉽네요.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프로그램이 연계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 친구들과의 소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그런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했던 친구들에게 연결수업이 되도록 우선 지원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매 강의마다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행동변화를 통해 선생님들의 준비와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보여주신 열정에 재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큰아이(현 중학생)때부터 인천(부평 포함) 여러기관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학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로 오랜만에 고 퀄리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작은 아이가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주신 부평아트센터 담당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모두 수고하셨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가 편한 분위기에서 친숙하게 연극수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스크를 벗고 더 자유롭게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 브리핑도 열심히 해주시고,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세심히 신경써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좋은 수업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수업을 너무 좋아했어요. 고맙습니다.
-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꿈다락 교실 오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워했어요. 감사합니다.
- 코로나로 신경쓰실 일도 많으시고, 수업도 매번 다른 주제로 준비하실게 많으셨을텐데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수업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후기>

1기수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TO, 민주쌤, 애숙쌤, 영국쌤.

정말 고맙고, 연기가 정말 실감났어요.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요.

그동안 수업 재미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 진짜 같아서 더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선생님들께 연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맙고요 사랑해요

2기수

재미있는것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라피 모형을 더 나은
일런케러가 재미있어요

시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놀았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사랑해요!!

연극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업과 놀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
해요

걸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느라 힘들었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시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놀았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사랑해요!!

〈예술교육가 후기〉

김민주

2020년 1월 어느 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부평아트센터와 함께 하기로 하였다.

예술교육가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해보고 싶은 것'의 자원을 얻는 것이기에 기대가 컸다.

〈감정〉이라는 큰 주제가 결정되고, 지원서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상상으로 즐거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연기되고, 수업이 시작되다가 연기되고,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지쳐갔다.

그럴 때마다 행정가와와의 협업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1기와 2기의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결과자료집에 글을 쓰기까지 안효정 선생님, 최영록 선생님, 김애숙 선생님의 지지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수차례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린 한 팀이 되어 비바람을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그 시간 안에서 충실하게 잘 지냈다.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를 통해 나는 연극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참여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수업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

헤어짐이 아쉬워서 복도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난처해하고 있었다.

그런 부모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만이라도 사람끼리 어울리고 나눌 수 있는 예술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기 10분 전에 부모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들이 2시간동안 만들어 낸 연극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만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세계를 엿보고 간접하려는 어른이 아니라

참여어린이들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하고 싶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멈추지 않고 계속 만나서 연극하고 싶다.'

이것이 지속되도록 모두의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다.

김애숙

심표와 마침표

드디어 후기를 쓰다니! 감격이 밀려온다.

후기를 쓰는 순간까지 오는데 심표(.)가 여러 번 반복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1기수 수업은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거리두기, 아이들이 목이 마를 때, 마스크에 땀이 차서 힘들어 할 때 등 수업 외에 신경 써야할 것들도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4회 수업까지 진행이 되었을 무렵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잠정 휴강에 들어간다. 또 심표의 순간이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날에 대한 초조함이 계속 되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서 카페도 식당도 마트도 사람이 많은 곳을 편하게 다니지도 못했다. 내 안의 불안이 자꾸 고개를 내밀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짜 한 참이 지난 후 수업이 다시 재개되고 1기수와 2기수를 오전과 오후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 수업이 재개되었지만 언제 휴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긴장감과 초조함 속에서 2기수까지 수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2기수 수업을 마치고 나선 정말 긴 안도의 숨을 크게 쉬었다. 아무 일도 없이 수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후기를 쓰는 이 순간 나는 감사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안도의 마침표를 찍는다.

마지막 수업 날 또 만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 집에서 선생님 주겠다며 고사리 손으로 써온 편지를 건네는 아이, 선생님들의 연기에 순위를 정해 주었던 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아이, 연극 속에서 나에게 '너 겁쟁이구나!'라고 하던 아이, 실뜨기를 못 하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끝까지 설명해주던 아이, 자신의 감정표현이 많아 졌다는 아이, 수업이 거듭될수록 극적 표현을 잘 하던 아이, 이 아이들과의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알쏭달쏭한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예술교육가 후기〉

최영록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선정!!!
 사업이 선정되고 기뻐하던 순간은 잠시, 그 후로 11월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공연 중심의 연극 활동이 아닌, 연극에 참여하는 ‘과정’이 중심인 활동으로 ‘대면’이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화상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연극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떤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누가 이 역할을 맡을래?”

“이 의자를 배라고 해요!”
 “이 천으로 바다를 만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할 테니 선생님이 엄마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던 때가 너무나 그리웠다.
 손을 맞잡아 집을 만들고,
 늑대를 피해 좁은 공간에 모여앉아 서로를 껴안으며 무서움을 달래던 순간이 너무나 그리운 일이 된 것이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노랫말처럼,
 그때는 당연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행히 비대면 수업 직전,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안에 얼마나 예쁜 코와 입이 숨어있는지 모르는 채 우리가 만났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이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만나게 된
 아이들의 목소리, 발걸음, 숨결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소중한 이유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엔,
 더 많이 마주보고,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에서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알쏭달쏭 나! 내 마음의 보물지도!〉 결과자료집

발행인 이영훈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문의 032-500-2000

기획총괄 고동희
기획운영 이미숙, 안효정, 이슬기, 이도훈
주강사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김민주, 김애숙, 최영록
보조강사 심민하, 채혜리
디자인 언프레임주식회사